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4년 1월 21일 (제1237호)

Jesus Centered News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붕우 컬럼

결단하고 시도하라

새해가 되면 우리는 뭔가 결심을 한다. ‘올해, 이것만은 해보리라’ 결단, 결심한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시도한 자가 몇이나 될까? 끝까지 해내는 자가 몇이나 될까? 결단했으면 시작, 시도해야 한다. 솔로몬을 보자. 그는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다. 역대하 2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와 의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고 했다. 그럼 그가 결심만 하고 그냥 앉아 있었을까? 아니다. 결심한 후에 그는 곧바로 성전 짓기를 시작했다. 3장 말씀이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지 사년이월 초이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대하3:1~2).

역대하 3~4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과정이 나온다. 그리고 역대하 5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와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대하5:1). 마침내 성전을 완성한다. 결단하고 행동한 결과다. 설계도가 아무리 좋아도 시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이 그려진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설계대로 건물을 시공해야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올해 무슨 계획을 세웠는가? 올해 무슨 결심을 했는가? 계획을 세웠으면, 결심했으면 시도하라. 시작하라. 그래야 길이 보이고, 돕는 자가 생긴다.

다이어트를 결심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라. ‘내일부터 하지.’ 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올해는 영어를 배워보리라.’ 하면 오늘 학원 등록을 하든지, 인터넷 강의를 들든지 시작하라.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리라.’ 하면 지금 성경을 펴고 창세기부터 읽어라.

성경은 통탄하신다. “아아 허탄한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약2:20). 시도하지 않는 결심, 다 헛것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 다 죽은 것이다. 바보들은 늘 결심만 한데, 나는 여러분이 결심하고 행동하는 현명한 자가 되길 원한다. ‘Just do it!’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예배를 준비하는 직원들에게 꼭 보내시는 잠언이 있다. 주일은 새벽 5시 반, 수요일예배 때는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보내신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자! 남에게 맡기면 사고 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누군가 해주겠지, 누군가 하겠지 하는 대충, 얼렁뚱땅 식의 안일한 생각일랑 아예 뿌리째 뽑아내라는 교훈이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맡긴 자를 무시하는 것이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다. 이는 목사님 스스로 하나님 일을 대할 때 40년을 항구 여일하게 동일한 정신과 자세로 임해오셨기에 당당히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하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

의 배라면 당시 서울교회와 인천교회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 회복 차원에서 별도의 처소를 준비하려고 계약금까지 지급했었는데, 주변 지인의 꿈에 그곳에 들어가니 ‘샘이 마르더라’, 혹은 ‘죽어서 나오더라’ 하는 꿈의 계시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철회하셨다. 계약금이 아깝다고 경고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씀하셨다.

베트남 집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려던 계획도 베트남에 들어가 일을 진행하려 하는데 베트남 공안당국에 걸려드는 꿈을 꾸신 후 역시 집회 계획을 철회하셨다. 가장 최근에는 서울교회 건축을 위해 부지를 알아보는 중, 대학교 건물과 부지가 나왔다는 정보를 접하시고 교회는 물

고 이방 민족을 들어 패리기도 했지만, 결국 목이 곧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며 이방 민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해야 했고, 급기야는 히틀러의 나치 전체주의 세력에게 600만이 학살되는 끔찍한 재앙을 당해야 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잠29:1).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는 경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나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라는 대명제가 엄연히 법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이 믿든, 믿지 않든, 무시하든지 말든지, 이 심판의 법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것이기에 그 누구도 변개할 수 없고, 피할 수 없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자!

남에게 맡기면 사고 난다

붕우 이초석 목사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님께서 꿈으로 계시하시는 것조차 조금도 허투루 생각지 않으신다. 이는 욕기에 적시해놓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죄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욥33:14~17).

자주 간증하시듯이 목사님은 강남꽃상가 전도단 건물을 인수하려 할 때 두 척의 커다란 배가 그 건물에 걸려 좌초되는 꿈을 꾸신 후 바로 생각을 접으셨다. 두 척

론 이참에 원래 가졌던 꿈대로 대학교까지 운영해보자는 생각을 가지셨었는데, 꿈에 건물이 무너지고 난리가 나는 계시를 받으시고는 역시 인수계획을 접으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경고라는 것을 100% 믿으시기 때문이다. 경고를 무시했다가는 경고 자체가 나를 무시하여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 경고한 내용들이 말라기서에 기록되어있다. 그토록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기도 하

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깨닫고 돌아와 구원의 길로 들어서길 원하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렘29:11).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구원의 대속자로 보내시고 죽음으로 완성한 대원칙,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9:27)가 있기에 끝까지 견디고 이기지 못한 자는 결국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도 너를 무시한다.’ 깊이 유념하자.

한은택 목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10:38~39)



사슴을 쫓는 자는 토끼에 미혹되지 말라

열왕기하 2장에 스승 엘리야를 쫓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열두 겨리나 되는 소를 놓고는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그런 엘리사를 엘리야는 자꾸 밀쳐냈습니다. 그 까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여하튼 엘리야는 길가에서, 벧엘에서, 예리고에서, 요단에서 엘리사에게 계속 '가라, 가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절대 떠나지 않겠노라 맹세까지 하며 필사적으로 따라붙었습니다.

하도 끈질기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네가 뜻한 바 목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제야 속내를 밝힙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왕하2:9).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나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 아니하리라"(왕하2:10). 이 말인즉슨 어렵기는 해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의 목적의식, 그 뜨거운 열정이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감동시켜 충분히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승천하고, 이를 본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겹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이 장면은 엘리사가 목적인 바다로 엘리야의 후계자는 되었음을, 또한 갑절의 능력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야의 기적이 7번 기록된 것에 비해 엘리사의 기적은 갑절인 14번 기록된 것을 봐도 엘리사의 목적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를 쫓은 사람은 엘리사뿐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 외에도 50명의 선지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엘리사와 다른 것은 그들에게는 확고한 목적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과녁이 있어야 화살을 쏠 수 있다

여러분, 그 50명의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그만두라', '스승의 뜻을 네가 떠나는 것이다. 스승의 뜻을 따르라.'고 설득하고, 만류하고, 회유하고, 미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기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끔 산에 오르다 보면 7부 능선쯤에서 도시락 펴놓고 술잔이나 기울이다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등산 시작할

때 마음,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랬겠지요. 이 정도 왔으면 다 온 거라고. 굳이 힘들게 정상까지 갈 거 뭐 있냐고. 그런 그들은 절대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을 상실한 자에게 성공과 밝은 미래는 당연히 없습니다.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큰 배를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그래도 좀 친하다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무슨 물이 쏟아지겠냐? 인생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했

다. 마태복음 24장에는 홍수 바로 직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습니다(마24:38). 그들은 마치 외눈박이 원숭이처럼 비정상적인 존재였지만,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옳다며 흥에 겨워 즐겼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노아가 되레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만일 노아가 고군분투하다 외로움에 지쳐 '외눈박이가 옳은 것 같다. 나도 저들과 함께하리라.' 하며 자기 눈을 쳐서 외눈으로 그들의 동류가 되었다면 인류의 역사가 어찌 되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았고, 마침내 때가 되매 40주야 비가 내렸고, 외눈박이 인생들은 비에 다 쓸려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흐리게 하고, 잃게 만드는 자는 나와 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와 아주 가까운, 내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말로, 위로라는 말로 다가와 목적의식을 슬그머니도 독질합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남편이 한나에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삼상1:8). '아들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있잖아.'라고 말한 겁니다. 굉장한 위로이고, 고마운 말입니다. 이 말에 한나는 기도를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사무엘은 세상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한나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여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친구에게 보리떡을 구하는

자나 누가복음 18장에 재관관을 찾아간 과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마9), 반드시 전쟁에 이겨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던 입다(삿11), 친구를 중풍병에서 낳게 하겠다는 네 친구(막2:1~5), 이들 모두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 있었기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상실한다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 너른 바다에서 나침반 없이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입니다. 이 긴 여정에서 천국이라는 목적을 상실하면 인생은 헤매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계2:25~26)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은 없습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시기하던 바벨론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30일 동

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단6:7).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법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항상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단6:10). 다니엘은 타협할 수 있었습니다. 단 30일이니까 하나님께 이해를 구할 수 있었고, 문 닫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0.0001%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소되었고, 며칠씩 굶은 사자굴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친히 찾아가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그를 구하셨고, 그를 더욱 높이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다니엘처럼 신앙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단3:16). '신앙에 타협이나 협상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들처럼 확고한 목적을 가지라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히3:14).

분명한 목적의식과 불굴의 정신을 가지라

여러분, 목적이 바로 서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구분되고, 목적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삶이 매일 그 나물에 그 밥인 까닭은, 당신의 신앙이 여전히 미지근한 것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말에, 세상 풍조에, 난관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사26:3). 쏫불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심지는 견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밝히고, 길 찾아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2024년,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려면 귀는 막고 오로지 눈만 뜨고 달리십시오. 타협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핏대만을 향하여 진군하십시오. 사슴을 쫓는 자가 토끼에 관심을 뒤흔어야 하겠습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계2:4~5).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2024년, 새해! 하나님 뜻은 신호등처럼 분명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새해 첫 주일에배에서 다짐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과 소원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기도하며 여쭙니다. 창엽의 꿈과 계획, 동업, 직장을 옮겨야 하는 이직 등 많은 결정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속 시원하게 답해주시며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물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도하며 기다려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며 작정기도를 하면서 간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어떡하시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묻는 것은 많은 부분 이미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내심 마음을 정했거나 내가 이미 결정했지만 왠지 미심쩍고 성령의 감동이 없어 답답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니다. 역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동의와 승인을 구하는 무의식에서의 몸부림인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때를 쓴 일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게 미치는 손실이 큰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즉, 우리 정욕과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런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참 딱한 경우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마7:9~10).

하나님은 우리가 돌을 달라고 구해도 떡을 주시며, 떡이 필요한 순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떡을 주십니다. 물론 떡을 달라고 구하면 떡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응답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숨 막히는 시간이 계속되면 영혼의 공황 상태가 찾아오고 대선지 엘리야처럼 동굴로 숨어드는 번아웃과 우울증으로 몸부림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 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왕상19:11~13).

19:11~13).

하나님은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 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왕상19:14).

엘리야가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7,000인이 남아있고,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낙담하고 절망하여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라고 강권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19:18).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경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둘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십니다.

셋째는 환경과 설교와 영화, 책,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을 마음속으로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100% 순종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난제와 계획 앞에서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1차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꾸준히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성경의 말씀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다음 성령의 감동으로

가슴 뛰는 충만함과 평안함이 있는지 2차적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3차적으로 꿈과 자연의 섭리,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와 영화, 책,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 불현듯 조명하시며 계시하십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어느 경우는 신호등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녹색 신호등에서 ‘앞으로 나아가라!’ 빨강 신호등에서 ‘멈추라!’ 지시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한 후 고집을 부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너 스스로 책임지라고 하시면서 침묵하십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수중심교단의 슬로건처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를 누리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암송하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신호등처럼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고집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주시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분별케 하시고 감동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호등처럼 분명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자녀된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2024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우신경외과 재활의학과(메디스텐
즐기세포센터) 대표원장 안계훈

교회를 세우심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지상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다. 교회는 주님의 몸임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엡1:23).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골1:18).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세상의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신다(막13:27).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

하는 사도적인 교회다.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그곳으로 사람을 불러 모으신다. 사람이 교회로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로 사람을 모으신다. 우리가 보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의 결과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셨다.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로 교회가 세워졌다. 한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다. 고조선,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을 지나 한민족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죄를 짓고 사며니즘, 불교, 유교, 도교 등 우상숭배 속에 있던 민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한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때가 차매 복음 전파자들을 보내셨다. 이 복음이야말로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의 복된 소식이었다.

조선의 종교, 정치, 사회, 문화적 정황은 복음을 갈망하는 분위기로 무르익고 있었다. 외세의 침입으로 나라는 혼돈의 상황에 빠졌고 어찌할 수 없는 백성들 에겐 희망이 없었다. 조선 말기, 위로는 임금에서 아래 말단의 고을 원님까지 부패한 탐관오리가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져 연약한 백성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궁궐부터 시골 마을까지 무당이 있어 나라와 백성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었다.

전통 종교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영적으로 공허함 속에 있었다. 조선 사람은 옛 종교에 대한 충성이 식었고, 믿음을

잃고 있으며, 인간이 만든 신앙의 공허와 거짓과 탐욕을 보고 있었다.

이런 종교적 공허 속에서 영적 갈망이 가득한 그때,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한반도에 전해졌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였다. 백성은 종교, 정치, 경제, 그 어디에도 기대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들어온 기독교 복음은 생명수와 생명의 떡과 같았다.

복음은 사람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까지 이끌어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기독교인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한국 교회에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

김종춘 목사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자



어떤 일이나 사물, 환경에 대해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분만을 알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면 실수하게 됩니다. 장님들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고 설명하라 하자 다리만 만진 사람은 큰 기둥 같다고 하고, 꼬리만 만진 사람은 가늘고 유연하다고 하고, 상아를 만진 사람은 딱딱하고 끝이 뾰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다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온전히 설명하진 못한 것입니다. 눈을 뜨고 전체를 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가장 정확한 답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 나무 한 그루만 보고 이 산은 형편없다고 하거나 죽어가는 나무만 있다고 말한다면 그 숲을 제대로 설명한 게 아닙니다. 산 전체를 알면 정상으로 갈 때 어느 길이 가장 빠르고 어느 길이 경사가 완만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도 전체를 알고 부분적인 일을 진행하는 것과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부분적인 일을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성경을 알고 깨닫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특정 말씀 한 구절에 치우쳐 그것만을 강조한다면 균형과 분별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에 따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깨달을 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멸망을 보게 합니다. 애굽에서 번성하고 출애굽의 역사와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로 이어지다 결국은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모든 일을 그 마음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엡1:11)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와 미혹과 우상숭배, 원망과 불신을 목격하게 하시고,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와 징계, 구원, 왕정시대를 지나는 동안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들과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택한 백성이 왜 자꾸 실패하고 망하고 있을까요?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고, 그 왕정시대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두 나라가 다 망하여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이해하지 못할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왜 이스라엘을 세우시지 않고 망하도록 내버려두실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까지도 마음대로 강압하게 하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 순종하는 생각을 주시지 않고 방치하

셨을까요? 그 답이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긍휼을 베풀려는 계획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 불순종과 넘어짐으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들을 시기 나게 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선택하신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을 생각해봅시다.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이 다 잘되고 성공적이어야 하는데 그 결말은 비참합니다. 예수님의 열 한 제자가 다 순교를 당하고, 스테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고, 신약 성경의 13서신을 기록하도록 크게 쓰임 받은 사도 바울까지도 수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 결말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저주를 당한 자 같습니다.

숲에서 나무만 보면 이해할 수 없으나 숲 전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경 전체를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영원한 천국과 큰 영광을 주시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이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앙이 실패한 자 같고 자꾸 반복되는 죄와 불순종으로 마음이 괴롭고 큰 환난과 역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받은 자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긍휼과 영광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버림당해

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큰 긍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아시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며 그 불순종과 고난 덕분에 겸손함과 거룩함을 배워 영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롬8:30). 내 힘과 노력이 아닌 후회 없으신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이루어집니다(롬11:29).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시고 하나님의 총만하신 것으로 채워(엡3:19) 영광의 자리에 두시려는 깊고 넓은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숲을 이해했다면 비록 지금 불순종과 은밀한 죄들과 실패로 힘들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그것이 곧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며 우리의 거울이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믿으시고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봅시다. 넘어지고 깨질수록 문제를 보지 말고 오직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의지합시다. 모든 것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하시는 것이며(엡3:11), 주님의 예정 가운데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려는 과정이라 믿고 인내합시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려 해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주저앉기를 반복하다 걷게 됩니다. 영적으로 장성한 자로 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성경의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고 깨달아 힘을 얻고 위로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롬11:32).

전북예수중심교회 김영종 목사

예수중심제자신학원 2024년도 신학생 모집

모집기간 : 2024년 2월 18일까지
문의 : 02. 533. 9191

:: 주님을 향하여 ::

나는 행복해요

일을 마치고 나면 전단지 묶음을 들고 골목과 사거리를 돌며 전도를 했다. 사실 건물 청소를 하고 있던 처지에, 일을 마치고 다시 거리를 돌며 전단지를 돌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온몸에 시큼한 땀 냄새가 배어 나올 정도로 1층에서 5층까지 오르내리다 보면, 일이 끝날 때쯤이면 몸은 천근만근이요 다리는 휘적휘적 풀려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일을 마치고 나면 전단지 한 묶음이라도 돌려야 마음이 편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한창 달아올라 있던 때였다.

일하던 곳에서 집까지는 걸으면 30분 정도 거리로, 버스 정류장으로 여섯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었다.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전단지를 돌리곤 했는데, 처음

에는 사람들에게 직접 줄 자신이 없어 우편함이나 가게 문틈에 끼워 놓곤 했다. 그런 내 전도 방법이 싫으셨던지, 한 날은 주님께서 나무라시는 꿈을 꾸기도 했다. 많이 떨기도 했고 말도 서툴렀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 전하니 차츰 대답해지면서 자신감도 커져갔다. 전도할 때의 기쁨이란 이루 형용할 수가 없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단지를 돌리다 보면, 어느새 천근만근이던 몸은 에너지가 넘쳤고, 입에서는 찬양이 흥얼흥얼 쏟아져 나오곤 했다. 그때 내가 즐겨 부르던 찬양이 「나는 행복해요」이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라며 눈물, 콧물 범벅 되어 몇 번이고 반복해 부르곤 했다. 낡은 철 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내

겐 인내가 필요했다. 내 집이지만 편하게 들어서지지가 않았다. 오래도록 제방에 갇혀 지내는 아들을 웃는 얼굴로 대하기 위해선 내 안에 이런 흥이 넘쳐야 했다. 한껏 주님을 향한 흥으로 들떠 있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 아마 전도는 이런 나를 위한 일이지 않았나 싶다. 전단지를 돌리며 흥에 겨워 찬양하다 보면 잠시나마 모든 걸 잊을 수 있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쉽게 공감되지 않을, 그 외로운 시간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고통스런 시간을 견디게 하셨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메마르지 않게 하셨다. 행복할 수 없는 시간을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사는 시간이었다.

주님을 만나 행복하다는 엄마의 고백을 믿지 못하던 아들은 점차 그것이 진짜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엄마는 웃음이 많아졌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았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 아들은 그런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차츰 엄마의 행복한 기운에 전염되어 갔다. 엄마가 공부를 하면 저도 공부를 하고,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하면 저도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렇게 아들은 조금씩 방을 벗어나 학교로 돌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점차 아들의 시간표는 빠르게 변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도전하며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더욱 행복했다.

박영임 성도